

‘지방권 광역철도 시대’ 개막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, 올해 내 개통 추진

- 구미~대구~경산, 평균 1시간 간격에서 출퇴근 15분 간격으로 단축
- 대구경북신공항철도, 수도권 GTX급 차량으로 투입 추진
- 대통령 주재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(1.25) 후속 추진을 위한 국토부 장관의 첫 현장 방문

- 국토교통부(박상우 장관)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(1.25, ‘출퇴근 30분 시대’, ‘교통격차 해소’)에서 발표한 「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」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(구미~대구~경산)를 올해 내 차질없이 개통할 계획이다.
 -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구미~대구~경산*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 * 전동차를 투입하여 출퇴근 시간대 15분(현재 평균 1시간 1대)
 - 특히, 경북 구미와 서대구, 동대구, 경산을 잇는 ‘광역권 노선’과 대구, 경북의 광역환승제도까지 연계되면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. * 서울과 같이 광역철도를 타고 버스로 환승 가능
-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~대구~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.85km 구간으로,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규모 전철사업이다.
 - 본 사업은 ’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, ’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광역철도로 지정된 이후 기본계획,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현재 막바지 공사 중에 있다.
- 특히, 이 사업은 “출퇴근 30분 시대, 교통격차 해소”를 주제로 1월 25일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주민이 대구에서 구미까지 출퇴근의 어려움을 제기하자, 함께 자리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려움에 크게 공감하며 동 사업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안으로 개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.

- 이에, 진행 중인 노반, 궤도, 건축, 통신·시스템 등 공사를 5월 마무리하고, 7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친 후, 8월부터 영업시운전을 거쳐, 12월 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 수준의 광역급행철도(x-TX)를 도입하는 등 광역철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.
-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(CTX)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, 대구~신공항~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 수도권 GTX급 열차가 투입되는 광역급행철도로 추진할 예정이다.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일 오전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대구역에 방문할 계획이다.
- 이날 방문은 1월 25일 개최된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첫 현장 행보이다.
- 박 장관은 이날 현장을 점검하며 ①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를 올해 개통하고, ②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는 최고속도 180km/h의 GTX급 열차를 투입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교통망을 구축하는 한편, ③대구·경북을 비롯하여 전국의 여러 지방권에서도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현되도록 철도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.
- 한편, 이날 오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북 혁신도시(김천)에서 정부, 지자체, 이전공공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며,
- 토론장에서는 혁신도시와 구도심 간 연계 및 상생방안,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혁신도시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어, 향후 정부에서 정책대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담당 부서 <광역철도>	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	책임자 담당자	과장 사무관	문희선 (044-201-3988) 이현진 (044-201-4133)
담당 부서 <혁신도시>	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정책총괄과	책임자 담당자	과장 사무관	한정희 (044-201-4456) 염지원 (044-201-4458)

□ 사업개요

- (사업구간) 경부선 구미~경산(기존 경부선 개량)
- (사업내용) 기존선 개량 61.85km, 정거장 7개소(기존 5, 신설 2^{사곡·서대구})
- (총사업비) 2,092억원 (국고 1,464억원, 지방비 628억원)
- (사업유형) 기존선 개량형
- (사업기간) 2015~2024년

□ 추진경위

- ('15.7) 예비타당성조사(B/C 1.00)
- ('16.11) 기본계획 고시(B/C 1.06)
- ('19.2) 실시계획 승인·고시
- ('19.3) 공사착공
- ('20.12) 대구권광역철도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

□ 향후계획

- ('24.6) 공사완료 → ('24.12) 종합시운전 및 개통